

프로야구 전망대



심동섭

KIA 5월 대도약 시험대



이용규



주중 한화 원정·주말 두산과 안방 6연전
오늘 심동섭 선발 등판 류현진과 맞대결
1할대 타격 부진 이용규 부활 여부 관전

KIA 타이거즈가 한화와의 주중 원정경기 이어 안방에서 두산과 주말 3연전을 맞는다.

KIA는 앞선 대결에서 한화에 2패, 두산에는 1승2패를 기록했다. 에이스 윤석민이 나섰던 두 경기에서 모두 패를 기록하는 등 두 팀에 열세를 보였다.

실력전을 앞둔 KIA는 '위기의 4월' 이후, 5월 4경기에서 2승2무를 거두며 무패행진 중이다.

신에 선수들의 배짱과 함께 부상병 라미레즈의 가세로 마운드가 안정세로 돌아섰고, 지난주말 2연승을 합작한 '꼬꼬마 키스본' 김선빈·안치훈은 3할 팽타를 휘두르며 타선에 불을 붙였다.

양현종·한기주·이범호·김상현의 부상 공백이 아쉽지만 세 경기 연속 연승 등 부활에 2연승을 달리며 덕아웃 분위기도 한껏 달아올랐다.

좌완 심동섭이 팀과 자신의 5월을 가는 해를 시험무대에 선다. 8일 KIA는 심동섭을 선발로 내세워 '괴물' 류현진과의 맞대

결을 벌인다.

지난 시즌 두드러진 배짱으로 마운드의 셋별로 떠오른 심동섭은 좌완이 귀한 KIA에서 불펜의 핵심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선수다.

그러나 부상으로 완벽하게 캠프를 소화하지 못한 심동섭은 올 시즌 중간으로 등판한 7경기의 방어율이 10.38에 이를 정도로 부진했다.

선동열 감독도 "정상적인 구위가 아니다. 양현종이 부상에서 회복되면 2군으로 보내 시간을 줄 계획이다"고 밝힐 정도로 아쉬운 4월이었다.

선발 로테이션이 완벽하게 꾸러지지 않은 상황에서 심동섭이 류현진을 상대할 임시 선발로 선택됐다. 8일 경기에 따라 심동섭의 5월 거취는 물론 겨우 끌어올린 팀 분위기의 향방도 달라질 전망이다.

심동섭은 "부상으로 아쉬운 겨울을 보냈다. 구속도 떨어지고 밸런스도 흔들리는 등 초반 모습이 좋지 않았다. 연봉도 많이 오르고, 경쟁도 치열해지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했다.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자신감있게 내 공을 던질 생각이다"고 밝혔다.

9일에는 '7억팔' 김진우와 유창식의 맞대결이 예상된다.

김진우와 유창식은 강승구와 함께 각각 폭포수 커브와 위력적인 슬라이더를 앞세워 고교시절 특급 선수로 주목 받았던 이들이다.

김진우는 진흥고를 졸업한 2002년 7억원의 계약금을 받고 KIA 유니폼을 입었고, 광주일고 출신의 유창식은 2011년 역시 7억원의 계약금과 함께 한화 선수가 됐다.

2012 프로야구 중간순위

팀	경기수	승	패	무승부	승률	게임차	연속
1 롯데	22	13	8	1	0.619	0	1패
2 두산	21	12	8	1	0.600	0.5	2패
3 SK	20	11	8	1	0.579	1.0	1승
4 LG	22	12	10	0	0.545	1.5	2승
5 넥센	20	10	11	1	0.476	3.0	3패
6 KIA	22	8	10	2	0.444	3.5	2승
7 삼성	22	9	13	0	0.409	4.5	1패
8 한화	23	8	15	0	0.348	6.0	1승

올 시즌 3경기에 선발로 나와 4.11의 방어율을 기록한 김진우는 매경기 위력이 더해지고 있다. 유창식은 지난 3일 시즌 첫 선발 등판에서 5과3분의2이닝 1실점 후투로 승리를 챙겼다.

이용규가 KIA 타선의 키를 쥐고 있다. 부동의 톱타자였던 이용규는 올 시즌 0.179의 타율을 기록하는 데 그치고 있다. 계속된 부진에 5월 경기에서는 7번으로 내려앉았다.

6일 6번으로 나선 이용규는 3회 18타석 만에 안타를 때려내며 긴 침묵을 깼다. 도루도 2개를 기록하는 등 이용규가 부활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이용규는 통산 13번째 8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기록에 하나를 남겨두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어린이? 김선빈은 어린이날엔 더 잘 해요"

덕아웃 말말말

▲이틀 쉬었다고 쓴 것까지 다 해요 = 선동열 감독, 1, 2일 우천으로 두 경기를 쉬었지만 이후 3경기 연속 연승 등 부활을 펼쳤으며, 3경기에서 KIA는 12시간8분 동안 34이닝을 치렀다.

▲포수들 안 되겠네 = 서재응이 5일 넥센전에서 프로야구 사상 첫 대타 연승 끝내기 땅볼을 때린 포수 송산을 보고, 10회말 1사 만루에 대타로 들어선 송산은 상대 수비수의 실책 플레이로 행운의 결승타를 기록했다. 4일에는 연장 12회말 1사 만루의 끝내기 찬스에서 포수 차일목이 유격수 앞 병살타를 때리면서 경기가 3-3 무승부로 끝났다.

▲애들이 울어요 = 투수 김진우, 5일 그라운드에서 진행된 어린이날 행사에 참가하라는 얘기를 듣고, 외모때문에 애들이 무서워해서 안 된다며.

▲어린이날이니까 어린이가 당연히 잘하는 거죠 = 안치훈, 어린이날 팀 최단신 김선

빈이 좋은 성적을 냈다면서, 김선빈은 5일 5타수 4안타 3도루 1타점을 기록했다.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 김상현이 경기장에 놀러온 아들이 공을 던지는 것을 보고, 운동 신경은 없는 것 같아 공부 열심히 시켜야겠다면서.

▲완주가 완주할 수 있을까? = 노태권 홍보팀장, 6일 윤완주가 내야안타로 출루하자, 초반 대주자로 투입됐던 7경기에서 윤완주는 후속타 발발로 한 차례 홈을 밟는데 그쳤다. 5-6일에는 9번 타자로 선발 출전해 2개의 득점을 추가했다.

▲아시안게임 보내주시시오 = 덕아웃에서 장난을 치던 나지완, 선동열 감독이 군대를 가야 철이 들것 같다고 한마디 하자,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혜택을 받게 해달라며.

▲택도 없다 = 선동열 감독, 나지완이 아시안게임과 감독추천으로 올스타전에 보내달라고 하자.

▲축하합니다 = 넥센 김병현, 한 취재자가 창사 기념 축하 멘트를 부탁하자.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매킬로이 천적' 파울러 PGA 첫승

웰스파고 챔피언십

프로 골퍼로 전향한 뒤 한국에서 열린 대회에서 첫 우승을 맞본 리키 파울러(24·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웰스파고 챔피언십(총상금 650만 달러)을 제패했다.

프로 3년 차인 파울러가 PGA 투어 대회에서 우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파울러는 7일(한국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케일할로 골프장(파 72)에서 끝난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연장 접전 끝에 D. A. 포인츠(36·미국)와 로리 매킬로이(23·북아일랜드)를 누르고 우승상금 117만 달러를 가져갔다.

2010년 PGA 투어 신인상을 받은 파울러는 작년 10월 천안 우정힐스 골프장(파71)에서 열린 코오롱 한국오픈에서 16연승과 268타의 준수한 성적으로 우승했다.

프로 첫 승의 꿈을 한국에서 이룬 파울러는 코오롱 한국오픈에서도 6타 차로 매킬로이를 꺾었기 때문에 새 골프왕제로 불리는 매킬로이의 천적으로 자연스레 자리매김하게 됐다.

한국 선수 중에는 노승열(21)이 1타를 더 줄여 최종합계 9언더파 공동 9위로 PGA 무대에서 처음으로 톱10에 진입했다.

이번을 포함해 올 들어 14차례 PGA 대회에 출전한 노승열의 종전 최고 성적은 4월22일 끝난 발레로 텍사스 오픈에서의 공동 13위다. 강성훈(25)은 6언더파 공동 26위, 배상문은 이븐파 공동 57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6일(현지시간)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열린 PGA 웰스파고 챔피언십에서 리키 파울러가 연장 접전끝에 우승을 차지한 뒤 엄지 손가락을 들어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시대 정주영 금메달

종별육상 멀리뛰기 7m41

조시대 정주영이 제41회 전국전종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정주영은 7일 김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남대부 멀리뛰기 결승에서 7m41을 뛰며 금메달을 획득했다.

광주시청의 박영식은 남자일반부 해머던지기에서 자신의 최고기록인 66m76으로 울산시청 이은철(69m16)에 이어 은메달을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전남 유일한 **고객 맞춤형 호텔웨딩!!!**

신양파크호텔

오직 한쌍만을 위한 웨딩...
당신의 가장 소중한 순간을 위해 준비 했습니다.

적용기간 4월 22일~5월 20일 / 7월~8월

예약문의_ 062-221-4101~3 <http://shinyangparkhotel.com>

